

보도 일시	2022. 9. 3.(토)	배포 일시	2022. 9. 3.(토)
담당 부서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	책임자	과장 이경환 (044-203-3252)
		담당자	사무관 한명일 (044-203-3259)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 해킹 신속한 복구 및 보안 강화 완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9월 3일(토),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대한 해킹이 발생했음을 확인하고 신속히 채널 복구 및 보안조치 강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해킹 경로에 대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

9월 3일(토) 새벽 3시 20분 경부터 대한민국 정부 유튜브 채널의 채널명, 채널 프로필이 변경되고 해당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이 송출되었으며, 이 사실 외의 별도의 피해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새벽 6시경 해킹 사실을 발견하고 7시 20분경 채널을 복구했으며, 채널 보안을 강화해 2차 피해를 대비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확한 해킹 유입 경위에 대해 유튜브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말했다.